

‘2002 한일월드컵’의 성과 - 국내 IT산업에 미친 영향과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기업체 IT 및 e비즈니스 담당 임직원 504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월드컵이 국내 IT산업에 미친 영향 평가와 향후 IT 산업의 발전 과제’에 관한 설문지 조사를 했다. 조사내용은 ‘월드컵이 국내 IT 산업에 미친 영향’과 ‘월드컵 이후 IT산업의 전망과 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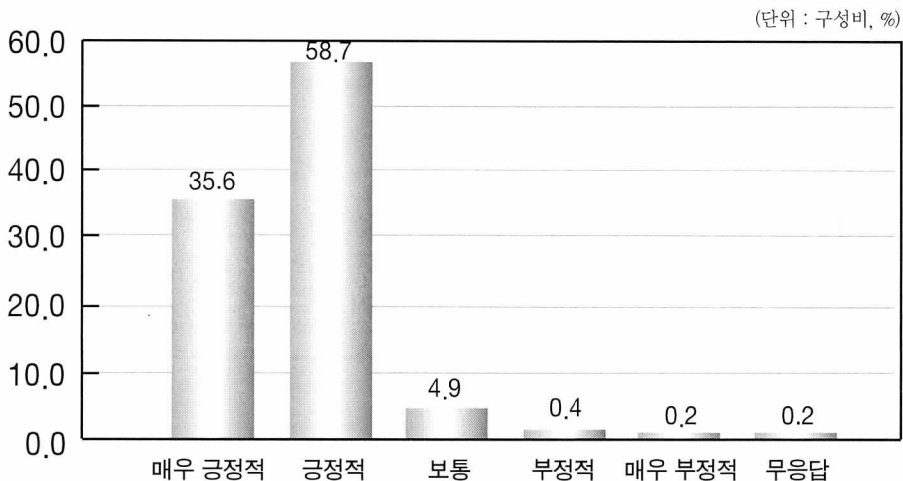
월드컵이 국내 IT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결과를 살펴보자.

1. 월드컵이 국내 IT 산업에 미친 영향

설문에 응답한 기업체 임직원들은 ‘2002 한일월드컵’을 질서·문화월드컵이며, 동시에 경제적인 면에서 국내 IT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IT월드컵’인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90%이상은 이번 월드컵대회가 국내 IT산업에 긍정적(매우 긍정적 35.6%, 긍정적 58.7%)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반면, 부정적이었다는 응답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컵의 국내 IT산업에 대한 영향 평가



월드컵을 계기로 부각된 우리나라의 'IT강국 이미지'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다수(87.0%)의 응답자가 향후 IT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된다면 IT강국의 입지가 공고히 될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IT 열풍을 일시적인 과열현상으로 보고, 월드컵의 열기가 식으면 IT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견해도 8.1%로 나와 IT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화된 초고속 인터넷과 통신서비스의 발달 등 IMF 이후 IT 산업을 집중 투자 하여 육성한 결과이며, 특히 대회 기간 중 선수단, 기자단 및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첨단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Financial Times(2002.6.4)는 우리의 IT기술 체험관 등을 현장 취재하면서 한국의 IT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고 극찬했으며, 이 밖에 CNN 등의 해외언론은 대회기간 중 총 114건의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IT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정보통신부, IT월드컵 추진성과, 2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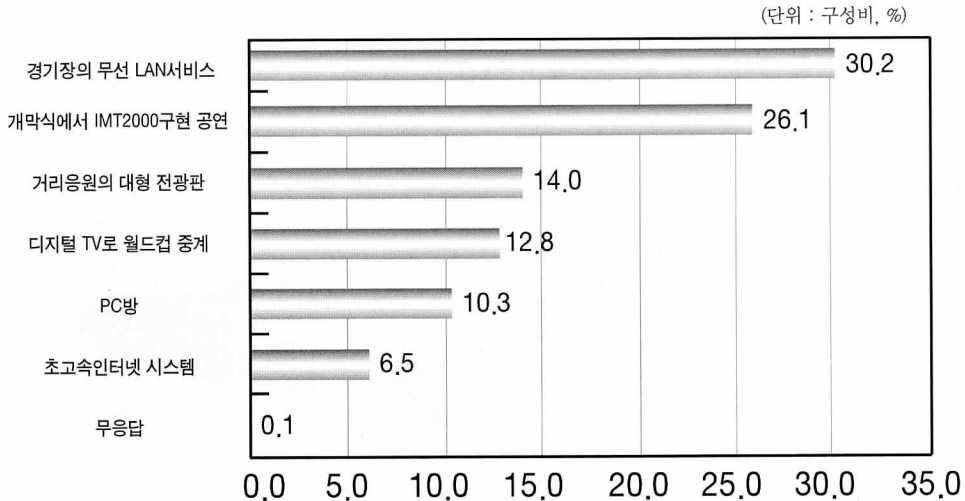
월드컵이 국내 IT산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제고와 한국산 IT 제품의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고양된 것(88.1%)을 꼽았다.

아울러 'IT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선진기업과의 기술제휴나 인력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5.7%)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당초에 기대되었던 국내소비의 증가(1.2%)나 수출증가 효과(0.4%) 등 직접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5만 여명(10만명 예상)에 그치는 등 관광수입이 저조했고, 응원열풍 등으로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6월중 5% 감소)하였으며, 수출도 지방선거, 노사분규, 원화가치 급등과 함께 월드컵 개최에 따른 조업 단축으로 6월 중에 흑자 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드컵을 통해 파생되는 IT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월드컵 이후의 8대 핵심과제, 2002.7.10)

월드컵대회 기간 중 'IT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부문'에서 응답자들은 경기장의 무선 LAN서비스(30.2%), 개막식에서의 IMT2000 구현 공연(6.1%) 등이 대내외적으로 'IT 코리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거리 응원과 함께 화제가 되었던 대형전광판(14.0%), 디지털 경기 중계(12.8%)도 'IT 한국'을 알리는데 주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IT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부문



무선LAN 시스템은 경기장에서 찍은 경기장면을 노트북을 이용, 2Mbps의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막식에서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IMT2000을 이용, 관객이 직접 개막식에 참여하는 모습이 250여대의 LCD 모니터를 통해 비춰졌다. 아울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형 전광판(308개소, 터키전 기준)을 이용한 거리응원(연인원 2,500만명)도 IT한국을 알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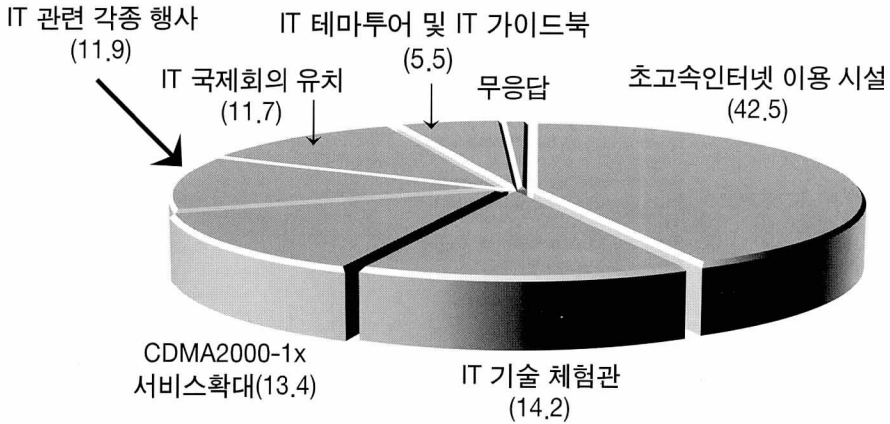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또 정부의 IT 월드컵 정책 중에서 초고속인터넷 이용 시설 운영(42.5%)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응답했다.

경기장 뿐만 아니라 기내(機內)에서부터 공항, 숙소에 이르는 모든 거점에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IT월드컵의 이미지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IT 기술 체험관 운영(14.2%),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CDMA2000-1x)서비스(13.4%), 아시아 IT장관회의 및 OECD Broadband 워크숍 등 IT국제회의(11.7%) 등도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다.

IT 월드컵 정책의 효과

(단위 : 구성비, %)



2. 월드컵 이후 IT 산업의 전망과 과제

월드컵을 계기로 크게 고조된 IT 열풍은 하반기로 이어져 IT산업의 경기상승(景氣上昇)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기업체 임직원들의 하반기 IT산업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IT경기지수*(IT-BSI, Information Technology Business Survey Index)는 138.3으로, 응답자들은 하반기 IT산업 전망을 밝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T-BSI = $[1 + \{\text{매우호전} \times (1) + \text{호전} \times (0.5) - \text{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 / \text{응답수}] \times 100$ 로 IT-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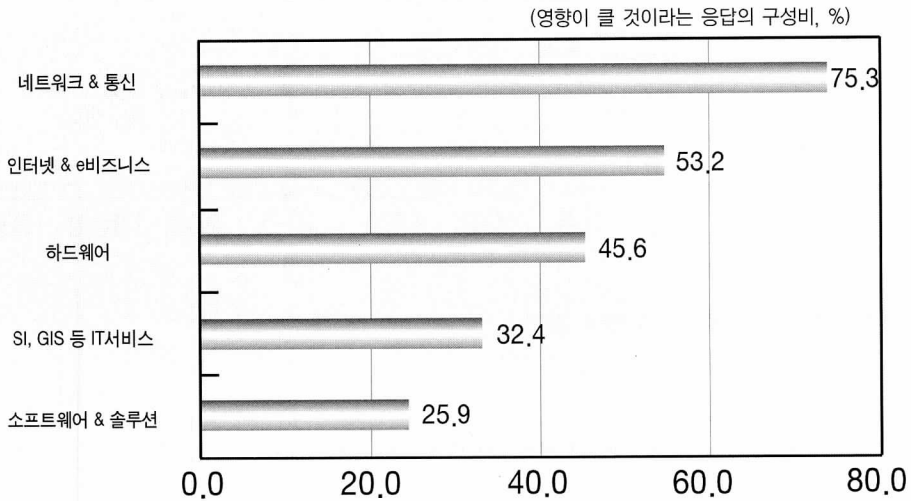
한편, 월드컵을 계기로 부각된 우리나라의 'IT강국 이미지'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다수(87.0%)의 응답자가 향후 IT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된다면 IT강국의 입지가 공고히 될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IT 열풍을 일시적인 과열현상으로 보고, 월드컵의 열기가 식으면 IT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견해도 8.1%로 나와 IT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컵대회의 효과는 향후 국내 IT산업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네트워크와 통신 분야에 영향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IT산업 분야별로 월드컵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은 네트워크 & 통신 분야(영향이 클 것

이라는 응답자가 75.3%), 인터넷 & e비즈니스(53.2%), PC, PDA, 반도체 등 하드웨어 (45.6%)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번 월드컵 기간 중 IMT2000 서비스, 무선 LAN, 초고속 인터넷 등이 주목받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IT산업별 월드컵의 영향도



한편, 월드컵 이후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IT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31.6%), 기업의 지속적인 IT투자(28.3%)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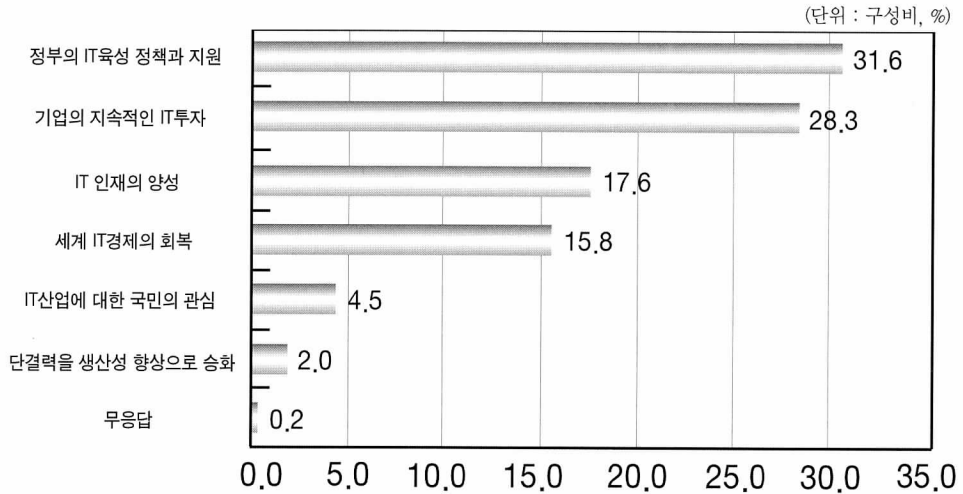
IT산업이 IMF 이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각광 받으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과 기업 투자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세계 IT경기의 침체로 IT 한계론이 급부상하면서 다소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응답자들은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인재양성 등 IT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17.6%)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또 월드컵 이후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미래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법체제 정비 등 IT인프라 확충(48.4%)에 치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IT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과 해외마켓 채널을 구축(35.0%)하고, 월드컵으로 고양된 IT강국의 이미지를 지속하기 위해 IT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15.2%)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IT산업발전을 위한 과제



IT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과제

(단위 : 구성비, %)

· 미래형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법체제 정비 등 IT인프라 확충	48.4
· IT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및 해외마켓 채널 구축	35.0
· IT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강화 사업 추진	15.2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1.4

이미 정부는 미래형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 수출 유망 10대 IT 품목 선정과 지원, IT 산업해외진출 추진위원회 등 월드컵 이후 IT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보도한 바 있다.(정보통신부, IT 월드컵 후속조치, 2002.6)